



한국 최초 카운터테크닉(Countertechnique) 워크숍 개최

창시자 Anouk van Dijk 방한, 성균관대

글 이슬기 (c21seulki@naver.com)

김나이무브먼트컬렉티브(NKMC)와 성균관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가 7월 11일~1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최초로 카운터테크닉(Countertechnique) 워크숍을 개최했다. 카운터테크닉 창시자이자 호주 청키무브(Chunky Move) 예술감독인 아누크 반 다이크(Anouk van Dijk)와 한국인 최초로 카운터테크닉 티칭 자격증을 취득한 김나이 교수가 공동으로 수업을 진행했고, 참가자들은 반 다이크의 <Distant Matter>(Staatsballett Berlin, 2019 레퍼토리)를 경험할 수 있었다. 첫 방한한 반 다이크를 축하사람들이 만났다.

